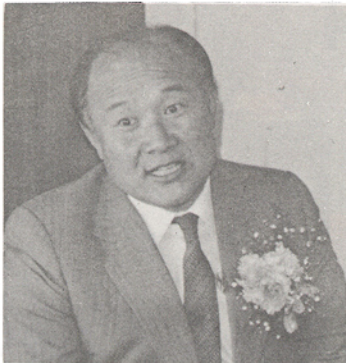


국민생활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



鄭寅用
(재무부장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방재시험소 개소식을 갖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험소 건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손해보험회사와 화보험회 임·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양식이 현대화 됨에 따라, 과거에 예측치 못한 새로운 위험이 우리생활 주변에 상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시설과 건물이 대형화내지 고층화되고 있으며, 가스, 전기, 유류등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최신 교통수단의 발달등은 각종 재해발생 위험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서 이러한 재해의 사전예방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시험, 연구를 통한 방재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운영주체가 보험회사로 되어있는 방재시험연구기관이 모두 40여개소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이미 100여년전에 설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순수한 우리의 기술로 이렇게 훌륭한 방재시험소를 탄생시킨데 대하여, 본인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험소가 국민생활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위험관리 기법의 개발을 통한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험소 임·직원 여러분은 이 시험소가 조속히 선진국 시험연구기관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시험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과, 손해보험업계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험소가 계속 성장·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와 같이 우수한 시험소를 출범시키는데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손해보험회사 임·직원 여러분과 이 시험소의 건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화보험회李大鎰이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부디 시험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86년 4월 11일

재무부장관 정인용